

# 북구의 한국 문화재 전시와 구미 민속박물관 소고 (北歐의 韓國 文化財 展示와 歐美 民俗博物館 小考)

李 鐘 哲

(文化財研究所 學藝研究官)

## 차례

- |                                      |                       |
|--------------------------------------|-----------------------|
| 1. 北歐의 韓國文化財 展示                      | 2. 歐美 民俗博物館 小考        |
| ① SINA(CINA)                         | ① 博物館의 意義             |
| ② 덴마크 國立博物館 民俗學部 韓國展示館과 銀行, 應用美術 博物館 | ② 未來指向과 種類 및 機能의 變化   |
| ③ 오후스大學 自然史 博物館                      | ③ 展示目標 및 便宜施設         |
| ④ 놀웨이 오슬로市廳 展示室                      | ④ 財政 公開               |
| ⑤ 스위든 및 핀란드 博物館                      | ⑤ Volunteer System 運營 |
|                                      | ⑥ 保存科學과 文化投資          |

## 서언(緒言)

본(本) 소고(小考)는 필자(筆者)가 77年 4月부터 6개월간(個月間) 미국(美國) 록펠러 재단(財團)(The JDR 3rd Fund) 후원(後援)으로 Smithsonian Institution에서 교육연수(教育緣修)한 민속박물관(民俗博物館)의 일반이론(一般理論)과 79年 2月부터 6개월간(個月間) 덴마크 문부성(文部省)(Undervisningsministeries) 초청(招請) 연구원(研究員) 시(時)에 습득(習得)한 북구(北歐)의 한국문화재(韓國文化財) 현황(現況)과 문화기관(文化機關) 소개(紹介)이다. 특(特)히 덴마크와 스웨덴에서는 한국문화재(韓國文化財)와 자료(資料)가 전시(展示)된 박물관(博物館)과 연구소(研究所)를, 노르웨이와 핀란드에서는 한국문화재(韓國文化財) 소개(紹介)가 가능(可能)한 문화수용(文化受容) 시설(施設)을 소개(紹介)하였다.

구미(歐美) 민속박물관(民俗博物館) 소고(小考)에서는 박물관(博物館)의 의미(意義), 미래지향(未來指向)과 종류(種類) 및 기능(機能)의 변화(變化), 전시목표(展示目標), 편의시설(便宜施設), 재정(財政), 공개(公開), Volunteer(자발적 지원자(自發的 支援者)) 운영(運營), 보존과학(保存科學)과 문화투자등(文化投資等)을 간략(簡略)하게 다루었다.

### 1. 북구(北歐)의 한국문화재 전시(韓國文化財 展示)

문화(文化)가 사회성원(社會成員)으로서 인류(人類)가 획득한 신앙, 종교, 정치, 예술, 기술, 과학, 생활양식의 총화(總和)라는 것은 우리가 깊이 아는 바이다. 문화가 전통(傳統)을 형성(形成)하고, 이들 지혜와 슬기의 축적 위에서 대중문화(大衆文化)가 잉태(孕

胎)되고 이러한 바탕위에서 주체성(主體性)의 확고한 토착화(土着化)와 주체의식(主體意識)의 배양(培養), 국적(國籍)있는 교육(教育)의 발전적(發展的) 모색(摸索)이 짝이 튼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強調)해도 모자라다. 오늘날의 선(先) 후진국(後進國) 문제(問題)에서 가장 힘든 과제(課題)는 정치적(政治的) 후진(後進)이나 경제적(經濟的) 후진(後進)보다도 정신적(精神的) 후진(後進)이나 문화(文化)의 속국화(屬國化) 또는 예속화(化)이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과 문화적(文化的)으로 동질감(同質感)을 갖고 교류(交流)를 갖는다면 따뜻한 이해(理解)가 존경과 애정으로 변할 때 정치, 경제, 무역문제 등이 쉽사리 풀릴 수 있다.

약술(略述)한 상기(上記) 예(例)에서 보듯이 다행(多幸)히 북구(北歐)에는 한국문화재(韓國文化財)를 소개(紹介)하고 있는 유명(有名) 박물관(博物館)이 있고 또 개척(開拓)해야 할 문화명소(文化名所)가 많다. 보고자(報告者)가 일별(一瞥)한 한국문화재(韓國文化財)를 전시(展示)하고 있는 박물관(博物館), 연구소(研究所)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이들 문화(文化)센타를 중심(中心)으로 한국자료(韓國資料)를 조사연구(調查研究)케 하고 전시(展示)를 집중(集中) 지원(支援)함으로 한국문화(韓國文化)을 보급(普及) 선양(宣揚)하여야 할 것이다.

#### ① 스칸디나비아 아세아 연구소(CINA)(Scandinavian Institute of Asian Studies)

현재(現在) 본부(本部)는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의 도서관내(圖書館內)에 있다. 북구(北歐)의 스웨덴, 노웨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등의 대학교수 학자 연구원 등(等)이 회원(會員)이 되고 있으며 예산은 이들 모든 나라에서 지원(支援)하고 세미나, 심포지움, 학술지 등(等)을 발간(發刊)하고 있으며 이 기구(機構)안에 한국학(韓國學) 연구부(研究部)가 코펜하겐 대학 교수(教授) 신휘동(申揮東) 박사(博士)에 의(依)하여 활발(活潑)히 움직이고 있어 북구(北歐)의 한국학(韓國學) 붐을 일키고 있다. 장서(藏書)만도 만여권에 이르러 한국(韓國)의 민속(民俗), 언어(言語), 미술(美術), 정치(政治), 인류학(人類學), 고고학(考古學), 공예(工藝), 사회(社會), 경제(經濟)까지도 광범히 취급(取扱)하고 있으며 이곳 도서(圖書)와 자료(資料)들은 북구오국(北歐五國), 덴마크 왕립도서관(王立圖書館), 코펜하겐대학 한국학과(韓國學科), 국립(國立)덴마크 박물관(博物館) 민속학부(民俗學部) 등(等)과 혼연일체(渾然一體)가 되어 자료(資料) 및 장서(藏書), 전문가(專門家)의 교환(交換) 공동연구(共同研究) 학술지(學術紙) 발간(發刊) 세미나등(等)을 하고 있다. 덴마크 및 유럽내의 자료(資料)센타, 연구(研究)도서관 아카데미아 구실을 하고 있는 일본(日本)의 동해(東海)센타(TOKAI University)-이곳은 겉으로 무역상(貿易商) 사재(私財)로 운영하듯이 위장하고 있으나, 일본(日本)정부가 Europe 문화보급(文化普及)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다.-에 버금하는 한국학(韓國學) 연구(研究) 기구(機構)로써 Scandinavian Institute of Asian Studies (CINA)를 손색이 없게 지원하고 보이지 않는 육성(育成)과 후원(後援)이 있어야 겠다.

몇 가지 실천계획(實踐計劃)을 든다면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의 해외공보관(海外公報館)이나 문예예술(文藝藝術) 진흥원(振興院), 문교부(文教部), 한국정신문화연구원(韓國精神文化研究院) 사설문화재단(私設文化財團), 재계등(財界等)에서 해외(海外) 한국학 연구자에게 지원장학금(支援獎學金), 연구비(研究費) 학술발표회(學術發表會) 보조비(補助費) 등(等)을 간섭(干涉)없이 보조(補助)해주고 대학원생(大學院生)이나 학자(學者)의

초청(招請), 출판협회(出版協會)를 통(通)한 한국학(韓國學) 서적(書籍)의 배부(配付)등은 참으로 안목(眼目)있는 국제협력(國際協力)이라고 느끼고 있다.

② 덴마크 국립박물관 민족학부 한국관(國立博物館 民族學部 韓國館)(National Museet ; Ethnografisk Samling) 보완(補完)

인류문화(人類文化) 모태(母胎)가 세계사대문명(世界四大文明) 발상지(發祥地)라면, 로마문화(文化)와 그리스문화(文化)가 오늘날 유럽문화(文化)의 시원(始源)일 것이고 이 유럽문화(文化)는 산업혁명(產業革命)과 교통(交通)의 발달(發達) 화약(火藥) 무기(武器) 항해술(航海術)의 발달(發達)·기독교문화(基督教文化)와 더불어 세계화(世界化)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세계문화(世界文化)의 중심지역(中心地域) 역할을 했던 유럽의 북부(北部), 덴마크의 수도(首都)에 한국문화재(韓國文化財)가 전시(展示)되어 독립(獨立)된 이 개(二個)의 전시실(展示室)이 있다는 것은 여간 다행(多幸)스런 일이 아니고 경하(慶賀)해야 할 뿐더러 모든 지원(支援)을 아끼지 말아야겠다. 보고자(報告者)가 알고 있는 정보(情報)로는 유럽의 박물관(博物館)에 독립(獨立)된 한국문화재전시실(韓國文化財展示室)이 있는 곳은 이곳 코펜하겐이 최초(最初)이고 다음에 네덜란드 라이든(Leiden)시(市)의 민족학박물관(民族學博物館)이 두번째 그리고 최근(最近)에 우리 정부(政府)에서 유물(遺物)을 대여(貸與)해주어 전시(展示)하고 있는 독일(獨逸)의 쾰른(Köln) 동양박물관(東洋博物館) 세곳 뿐이다. 나머지는 중국(中國)이나 일본문화(日本文化) 소개(紹介)의 한 방편(方便)으로 더부살이 비슷이 한국(韓國)의 삼국시대(三國時代) 토기(土器)나 고려(高麗) 이조자기(李朝磁器) 및 가구등(家具等)이 산견(散見)되는 바이다. 이러한 천혜(天惠)의 조건(條件)을 이용(利用) 못하고, 있는 전시실(展示室)마저 활용(活用) 못하고 보완(補完)해주지 못한데서야 문화(文化)와 전통(傳統)을 가진 국가(國家)와 민족(民族)으로 여간 수치가 아니다. 지금 이곳 박물관(博物館)은 생동(生動)하는 전시(展示)를 위(爲)한 일대(一大) 수리(修理)를 계획(計劃)하고 있어, 이 시기(時機)를 이용(利用)한 우리 문화유산(文化遺産)의 보급선양(普及宣揚)은 시의(時宜)에 적절(適切)한 것 같다. 이미 현지(現地)에서 그곳의 동양학(東洋學) 연구관(研究官) Rolf Giberg와 대사관(大使館)의 박성수(朴成洙) 문화공보관(文化公報官) 한국학전문가(韓國學專門家) 신휘동(申揮東) 교수(教授) 그리고 현지(現地)에 머물렀던 한국(韓國)의 고건축(古建築), 박물관(博物館) 전문가(專門家) 장경호(莊頸壺), 김동현(金東賢) 제씨(諸氏) 등이 구체적(具體的)인 전시안(展示案)을 마련하여 해외공보관(海外公報館)에서 계획서(計劃書)가 검토(檢討)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적은 예산, 한정된 지출내역(支出內譯)이겠지만 문화(文化)와 교육(教育)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것을 명심(銘心)하고 이번의 호기(好機)를 놓쳐서는 안되겠다. 참고(參考)로 국립(國立) 덴마크 박물관(博物館)에 한국(韓國)의 문화재(文化財) 총수(總數)는 3,000점(點)을 넘고 있다. 이의 광범위(廣範圍)한 활용(活用), 해외(海外) 소장(所藏) 문화재(文化財)의 확인조사(確認調査) 또한 시급(時急)하다.

아울러 덴마크 고도(古都) 유명(有名)한 후레데릭스보그(Frederiksborg)왕실 국립역사박물관이 있는 힐레로드(Hillerod)의 은행박물관(銀行博物館)(Frederiksborg Bank Museum)에 한국(韓國) 화폐(貨幣)(1950년대 것)가 세계각국(世界各國)의 화폐(貨幣)속에 선을 보이고 있는데 이 또한 한국은행(韓國銀行) 당국(當局)이나 고화폐수집가(古貨幣蒐集家)(한국은행 원주호씨 등(韓國銀行 元主鎬氏 等))가 중심(中心)이 되어 고대(古

代)부터 현대(現代)에 이르는 한국화폐사(韓國貨幣史) 유물(遺物)과 자료(資料)들을 보내주어 한국문화(韓國文化)를 후레데릭스버그 은행박물관(銀行博物館)을 통(通)하여 보급(普及)시켜야겠다. 한국(韓國) 상품(商品)이나 수출(輸出)을 위(爲)한 별도(別途)의 선전(宣傳)이 물론(勿論) 필요(必要)하지만 문화소개(文化紹介)보다 더 효과적(效果的)인 방법(方法)은 없다.

세 번째로 코펜하겐 중심(中心)가에서 인어상(人魚像)으로 가는 길목에 칼스베어맥주 회사에서 지원(支援)한 산업미술(장식 미술(裝飾 美術))박물관(博物館)(Museum of Applied Art)등이 있다. 이곳은 유명(有名)한 마블교회(教會)(Marble Church) 아말리엔 보그왕성(王城)(Amalienborg Palace) 18세기 카스토레트성(城), 레지스탕스박물관(博物館), 건국신화(建國神話)의 게피온분수조각 등(等)이 군집(群集)해 있는 명소(名所)인데 이곳 장식미술박물관에 한국(韓國) 신라토기(新羅土器)와 고려자기(高麗磁器) 몇 점 이 일본(日本) 미술품(美術品), 중국(中國) 미술품(美術品)사이에 끼어있다. 이곳은 덴마크가 세계적(世界的)으로 자랑하는 공예기술(工藝技術), 덴마크 디자인과 헛손의 산실(産室)로 유명(有名)한 박물관(博物館)이어서 이곳에 한국(韓國)의 전통문양(傳統紋樣), 자수(刺繡), 매듭, 단청(丹青)이나 칠보(七寶), 자개(나전칠기), 화문석(花紋席), 도자기등(陶磁器等)을 기증하여 전시(展示)하면 수출한국(輸出韓國)의 선발전지(先發基地)로서 문화전수(文化傳授)의 시험대(試驗臺)로서 활용(活用)될 수 있다. 여기에 중국문화실(中國文化室)은 대형(大型) 전시실(展示室)이 2~3개 되며 일본(日本)은 소형(小形) 2개(個) 한국(韓國)은 진열장 1개뿐이 없다. 한국대사관(韓國大使館)은 도보(徒步)로 10분 거리이다. 덴마크는 유럽의 시골처럼 소개된 나라이지만 그 실은 북구(北歐)의 정치(政治) 경제(經濟) 문화(文化) 관광(觀光)의 중심(中心)으로 문화(文化)는 세계적(世界的)으로 손색이 없다. 박물관(博物館)도 250개가 넘으니 말이다. 이곳 장식미술박물관(裝飾美術博物館)의 한국민예품(韓國民藝品) 지원(支援)은 시급(時急)하고 절실(切實)하다.

이런 의미(意味)에서 지난 79年 8月 한국민속예술단(韓國民俗藝術團)의 유럽공연(公演)을 기념(記念)하기 위한 음악박물관(音樂博物館)에 한국(韓國) 전통악기(傳統樂器) 기증(寄贈)은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가 행(行)한 근래에 보기 드문 쾌거(快舉)였다. 여론(輿論)과 보도(報道)는 시사성(時事性)이 있고 신속하고 때로 흥분을 자아낸다 그러나 그것은 망각 속에 쉽게 잊혀져간다. 문화(文化)는 침전(沈澱)한다 영원(永遠)속에 너리 속에 깊은 혈맥처럼 차여져 흘러서 인간(人間)이란 유기체(有機體)가 남는 한 영원(永遠)히 남는다. 그리고 전승(傳承)된다. 문화(文化)에 투자(投資)만큼 효과적(效果的)인 홍보(弘報)가 없다는 것을 다시 강조(強調)하는 바 이다.

### ③ 오후스(Ahrus)대학(大學) 자연사 박물관(自然史 博物館)

북부(北部)독일과 유트란드반도(半島)로 이어져 있는 오후스는 코펜하겐과 필적할만한 덴마크 제이(第二)의 도시(都市)다. 이곳은 정치(政治) 경제(經濟) 문화(文化) 학술(學術)의 중심지(中心地)이고 모든 면에서 수도(首都) 코펜하겐과 부단(不斷)한 경쟁을 하고 있다. 덴마크인(人)들은 오후스가 있는 유트란드반도(半島)를 본토(本土)라 부를만큼 이곳에 대한 그들의 기대(期待)는 크다. 여기에는 덴마크 왕실(王室)의 별궁(別宮), 유명(有名)한 오후스대학(大學)이 있고 여기에 소속된 자연사박물관(自然史博物館)은 세계적(世界的)인 것으로 덴마크와 유럽의 자연(自然)과 환경(環境)및 이의 순응(順應)과

올바른 이용(利用)에 대(對)하여 입체전시(立體展示)를 하였으며 세계(世界)의 희귀 동물(動物) 조류(鳥類)를 전시(展示)하였는데 여기 역시(亦是) 중국(中國) 일본(日本)은 소개(紹介)가 되었으나 한국(韓國)은 빠져 있다. 이곳에 한국(韓國) 자연보존(自然保存) 연구회(研究會)를 통(通)하여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중 동물(動物) 조류(鳥類)의 표본(標本), 자연보호사진등(自然保護寫眞等)을 기증(寄贈)하고 자료교환(資料交換)이 이루어진다면 전시물(展示物)을 통(通)하여 국위선양(國威宣揚)이 이루어질 뿐더러 한국(韓國)의 자연(自然)과 풍물(風物)을 소개(紹介)하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득(得)을 얻을 뿐더러 문화(文化), 무역(貿易), 외교(外交)에 일조(一助)가 될 것이다.

아울러 선사시대(先史時代) 야외박물관(野外博物館)과 오후스대학(大學) 고고학(考古學) 박물관(博物館)이 있는 모스-가드(Mossegaard)에 한국(韓國)의 민가(民家)를 한 채 기증(寄贈)하는 방안(方案)도 검토(檢討)해 보자 태국(泰國) 정부(政府)는 이미 허술한 민가(民家)를 한 동(棟) 기증하여 문화보급(文化普及)에 노력(努力)하고 있다.

#### 덴마크내(內) 한국관계 제안(韓國關係 提案)

가) 1950年 이후(以後) 입양(入養)된 한국(韓國)어린이와 이들의 양부모(養父母)를 위(爲)한 한국문화원(韓國文化院) 설립(設立).

스칸디나비아 삼국(三國) 및 기타(其他) 구주(歐洲)에 입양(入養)된 어린 새싹들의 수효(數效)는 정확(正確)한 통계(統計)는 미견(未見)한 바이나 대략(大略) 2만 여명으로 알고 있으며 지금 성년(成年)이 되고 사춘기(思春期)가 된 이들에 대하여 한국(韓國)을 알게 하고 이해(理解)시키고 동감(同感)하게 하며 설명(說明)을 해주고 한국(韓國)의 일을 심어 주는 것은 참으로 중요(重要)한 일이다. 특(特)히 이들 나라들에는 북傀대사관(北傀大使館)이 상주(常駐)되어 있고, 이들의 역선전(逆宣傳), 공작(工作), 납치(拉致), 밀봉교육(密封教育)의 가능성 등이 예견(豫見)되는 곳이다. 따라서 이를 사전(事前)에 예방하고 저지하기 위해서 한국문화관(韓國文化館)을 설립(設立)하여 한국(韓國)을 이해(理解)시키고 피부로 느끼게 하는 현장(現場) 교육(教育) 도장(道場)으로 활용(活用)함이 바람직하다.

문화원(文化院)이나 문화(文化)센터를 설립(設立)하는데 커다란 규모의 예산이나 어마어마한 건물(建物)이 꼭 필요(必要)한 것은 아니다. 작게는 10여명 규모의 자료실(資料室)이나 도서실(圖書室)과 20여명 정도의 응접실을 겸한 소극장(小劇場)이나 전시실(展示室)이면 족(足)하다. 문제는 내실(內實)에 얼마나 충실(充實)을 기하느냐에 있다.

이 소규모의 “사랑방”을 가지고 한국의 문화(文化)가 무엇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어떻게 변화(變化)되고 세계문화(世界文化)나 유럽문화(文化)속에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그들과 관계되는가를 이해시켜주면 된다. 직원은 대사관 직원중에서 윤번제(輪番制) 근무(勤務)나 Volunteer system(지원자제도) : 예 현지(現地)교민이나 직원부인의 일일(一日) 근무제(勤務制)(물론(勿論) 대사관직원, 직원부인(夫人)이 고충과 어려움은 끝없이 많다) 아니면 현지인(現地人)의 고용도 가능하고 이에 필요(必要)한 예산이나 경비는 정부재원, 무역협회지원, 북구진출(北歐進出) 한국(韓國)무역회사, 가족회원제도를 이용한 회비납부 등도 가능하다.

『사랑방 문화원(文化院)』의 기능은 첫째 청소년문제상담, 한국전통음악(韓國傳統音樂) 감상, 자선차집, 장기, 바둑실, 독서실, 영화감상, 여행안내, 한국어학교, 소규모전시등을

운영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덴마크 스웨덴의 청소년(靑少年) 청소년(靑小女)까지도 포함한 동양문화(東洋文化)의 창구가 되면 더욱 좋다. 욕심을 부리면 News letter(소식란(消息欄))를 발간(發刊)하고 연보(年譜)를 간행(刊行)하고 예술인, 학자, 과학자, 음악무용인을 초청하여-이들이 유럽을 순방(巡訪)할때 의무적으로 방문(訪問)케하여 -학술강연을 갖고 동양문물(東洋文物)을 무인판매(無人販賣)하고 북구(北歐)와 한국(韓國)을 이어주는 문화(文化)의 교량 역할을 해주면 된다. 이곳 “사랑방 文化院”을 중심(中心)한 양부모(養父母)과 성년(成年)이된 천사(天使)고아들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한국의 하계학교(夏季學校) 등(等)에 초청(招請)하여 한국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것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없다.

북구(北歐)는 비행기로 20시간~24시간 그러나 멀고 먼 나라이다. 지척지간인 일본(日本)과는 다르다. 하루라도 빨리 “한국사랑방”KOREA PARLOUR(文化院)의 설립(設立)과 효율적(效率的)인 운영(運營)이 시급(時急)하다. 이제 눈앞의 큰 고비는 몇 고개 넘겼으니 장기적(長期的)인 정책개발(政策啓發)에도 눈을 돌리자. 우리 때 못하면 주춧돌이라도 우선 놓고 보자.

#### ④ 늘웨이 오슬로 시청(市廳) 전시실

북구(北歐) 바이킹의 나라 노르웨이는 우리에게 눈과 스키와 아름다운 피요르드만등(等)의 자연(自然)의 풍경(風景)으로 유명(有名)하며, 또한 쉴베이그노래의 그리그, 남극탐험의 아문젠, 화약의 발명자(發明者) 노벨의 연구소(研究所) 의학(醫學)의 한센슨씨 그리고 조선국등(造船國等)으로 명성(名聲)이 있다. 비교적(比較的) 19세기(世紀) 후반(後半)부터 세계(世界) 선진(先進) 대열(隊列)에 끼어서 산업화(產業化) 근대화(近代化)에 남다른 관심(關心)을 보이고 있지만, 문화(文化)와 예술(藝術)에 대(對)한 이들의 열의(熱意)와 전통(傳統)의 새로운 창조(創造) 또한 대단(大端)하다. 그래서 늘웨이 第2의 도시(都市) 베르겐(Bergen)에는 에드바드 그리그의 생가(生家)가 전국민(全國民)과 전세계인(全世界人)의 추앙을 받으며 명소(名所)로 각광(脚光)을 받고, 세계적(世界的)인 음악제전(音樂祭典)이 개최되는 그리그홀, 수도(首都) 오슬로에는 북구(北歐)가 낳는 세계적(世界的)인 화가 에드바드문크(Edvard Munch)의 문크 미술관(美術館)이 있으며, 오슬로의 이정표격(里程標格)인 오스로 시청(市廳)은 건물자체(建物自體)가 하나의 예술품(藝術品)으로 외부(外部)의 늘웨이식정원 분수대(噴水臺)부근은 목조각(木彫刻)의 서민(庶民) 생활상(生活相), 내부(內部)는 모자이크된 생활문화(生活文化)를 재현(再現)한 도자회화(陶磁繪畫), 늘웨이 화가(畫家)가 총동원(總動員)된 벽화(壁畫) 그리고 이층회랑(二層回廊)에 즐비한 세계(世界) 각국(各國)에서 기증(寄贈)한 공예품(工藝品)들은 참으로 인상적(印象的)이고 훌륭한 문화교류(文化交流) 제전(祭典)이었고 국민(國民)과 친숙한 관청(官廳), 민중 속에 파고 등 문화예술(文化藝術)을 피부로 느꼈다. 한국(韓國) 또한 현대(現代)속에 맥락을 이어온 인간문화재(人間文化財) 공예작품(工藝作品)을 선정(選定)하여 한국(韓國) 민족(民族)의 우정(友情)과 함께 기증(寄贈)할 것을 건의(建議)하고 싶다. 이미 인도(印度), 파키스탄등(等) 수많은 세계문화국가(世界文化國家)들이 그들의 공예품(工藝品)을 보내어 전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문화교류(文化交流)보다 더욱 값진 국제교류(國際交流)는 흔하지 않다고 생각(生覺)한다. 더불어 오슬로대학(大學)과 제휴 운영중(運營中)인 국립역사박물관(國立歷史博物館)에 한국(韓國)의 선사시대(先史時代)의 유례(類例)가 많은 다양(多樣)한 토기편(土器片)을 그들과 교환(交換)함도 굉장히

값있는 문화이해(文化理解)의 한 방편(方便)이다. 그들과 우리의 선사시대토기(先史時代土器)는 거의 비슷한 근원(根源)과 문화(文化)의 유사성(類似性)을 가지고 있어 고대문화(古代文化)에 있어 동류형(同類型) 문화권(文化圈) 의식(意識)도 양국간(兩國間)의 이해(理解)와 협조(協助)의 일체감(一切感)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 ⑤ 스웨덴 및 핀란드 박물관(博物館)

스톡홀름은 인구 200만명에 박물관(博物館)이 52개소(個所)나되는 문화(文化) 집약적(集約的)인 도시(都市)이다. 이 가운데 구스타프왕에 의(依)하여 수집(蒐集)된 동양관계 유물(東洋關係遺物)은 세계적(世界的)으로 유명(有名)하며, 특(特)히 동(東)아시아박물관(博物館)(Östasiatiska Museet)은 중국(中國) 일본(日本) 한국(韓國)의 문화재전시(文化財展示)로서 서구(西歐) 최고(最高)의 자료(資料)와 수준(水準)을 자랑하고 있다. 이곳에 한국문화재(韓國文化財) 대여전시(貸與展示)나 순회전시(巡廻展示)를 통(通)하여 한국문화(韓國文化) 나아가서 동양문화(東洋文化)에 대(對)한 그들의 인식(認識)을 높여주고 친밀도(親密度)를 갖게 함으로써 양국간(兩國間)의 공통(共通)의 대화(對話)가 오가고 현지(現地)교민이나 입양(入養)고아에게 한국(韓國)의 발전상(發展相)과 한국(韓國)의 얼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은 주지(周知)하다시피 스칸디나비아 최고(最高)의 복지국가(福祉國家)로서 그들의 문화수준(文化水準)은 대단(大端)하다. 또한 최근(最近)에 뉴스의 각광을 받게된 핀란드는 동구권(東歐圈)이나 대공산권(對共產圈) 교역(交易)의 전초기지(前哨基地)로서 우리의 이목(耳目)을 집중(集中)시키고 있으며 1952년 헬싱키올림픽이나 핀란드가 낳은 세기적(世紀的) 단거리 주자 누루미의 신기록(新記錄), 한국(韓國)축구의 삼패등(參敗等)으로 유명(有名)하나 이 밖에 우리와는 5천년(千年)의 역사(歷史)를 거슬러 올라가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의 즐문토기(櫛文土器)와 비슷한 유형(類型)의 토기(土器)를 가지고 있으며 원주민(原住民) lapps(래프)족(族)의 민속(民俗)은 우리 문화(文化)와 아주 유사(類似)하다. 특(特)히 비슷한 한국(韓國)의 무속(巫俗)은 핀란드국민(國民)에게, 따뜻한 이해(理解)와 공감(共感)을 일으킬 것이 분명(分明)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양국간(兩國間)의 이해증진(理解增進)을 돈독(敦篤)히 하고 문화적(文化的) 유대(紐帶)를 강화(強化)함은 미래(未來)를 다지는 확실(確實)한 친분(親分)이 될 것이다.

## 2. 구미 민속박물관 소고(歐美 民俗博物館 小考)

### ① 박물관의 의의 (博物館의 意義)

가장 짧은 시간(時間)에 그 나라 그 고장의 문화(文化) 사회(社會) 역사(歷史)의 함축된 파노라마를 박물관(博物館)처럼 생생(生生)하고 활력(活力)있게 솔직하게 보여주는 곳이 또 있겠는가? 우리는 문화(文化)와 교육(教育)과 국방(國防)이 그 나라 국부(國富)를 반영(反映)한다는 말을 종종 듣고 그 나라의 전통(傳統)과 슬기 민족성(民族性), 세계문화(世界文化)에서 그 나라의 비중(比重)이나 위치 등을 알려고 먼저 그 나라 박물관(博物館)과 도서관과 대학을 찾게 된다.

박물관(博物館)은 자연(自然)과 인문(人文)에 대한 전부분(全部門)의 온갖 자료 또는

제한된 그 일부를 수집하여 정리·보존하고, 이를 과학적(科學的)으로 조사(調查)·연구(研究)하여 거기에 잠재하는 진리를 밝혀서 그 성과를 일반사회에 널리 교육 보급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교육 기관이다<sup>1)</sup>. 또한 미국의 국립박물관장(國立博物館長)이던 Brown Good 박사(博士)는 <博物館은 自然現象 및 人類의 生活를 가장 잘 설명하는 물건을 保存하고 또 이것을 사람들의 지식증진과 교육계몽에 활용하게 하는 기관이다>라고 정의하고 박물관의 구성요소를 1) 박물관 자료 2) 상설공개를 위한 토지와 건물 3) 1, 2를 실제로 움직이는 목적(目的)과 그것들이 활용(活用)하고 있는 상태라 밝혔다. 즉 유물(遺物)이 항상 특정한 장소에서 관객(觀客)에게 교육과 영향과 감화를 주어 그 진가를 발하고 있는 동적상태가 <살아있는 박물관><참다운 박물관>이라는 것이다<sup>2)</sup>.

영어의 museum, 프랑스어(語)의 musee, 독일어의 museum등은 그 어원(語源)이 문예(文藝) 미술(美術) 철학(哲學)의 여신(與信)<뮤즈신(神)의 전당(the temple of the Muse)>을 뜻하는 것으로 학문·문예를 연구하고 학생을 양성하는 곳임을 의미한다. 어원(語源)은 Museion이었고, 기원전 300년경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Alexandria)에 세워졌던 궁전(宮殿), 승암(僧庵), 공개강연실(公開講演室) 등에 이 말이 쓰이기 시작하였다<sup>3)</sup>. 또한 박물관(博物館)이라함은 예술(藝術) 역사(歷史) 미술(美術) 과학기술(科學技術)에 관(關)한 수집품(蒐集品) 및 동물원(動物園) 수족관등(水族館等) 문화적(文化的) 가치(價値)가 있는 자료표본(資料標本) 등을 보유(保有)하고 연구(研究)하며 일반공중(一般公衆)의 오락(娛樂)과 교육(教育)을 위하여 공개(公開) 전시(展示)함을 목적(目的)으로 하여 그것이 공공(公共)의 이익을 위해 기여하는 항구적 건물(建物)이다<sup>4)</sup>. 고 헌장(憲章)은 이야기 하고 있다.

## ② 미래지향(未來指向)과 종류(種類) 및 기능(機能)의 변화(變化)

오늘날의 박물관은 이러한 역사적(歷史的) 의미(意味)와 더불어 박물관(博物館)의 사회교육적(社會教育的) 기능(機能)과 활동(活動)이 중시(中侍)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수집(蒐集) 보존(保存) 전시(展示)의 기능(機能)과 조사연구(調查研究)(Investigation)하고 감상에서 느끼는 정서생활(情緒生活)의 함양(涵養)(Inspiration) 그리고 역사(歷史)의 거울로서 과거(過去)와 현재(現在)를 두루 비춰주고 미래(未來)까지를 조명(嘲名)해 주는 문화(文化)와 교육(教育)과 과학(科學)·예술(藝術)과 사랑의 보급자리이고 잔치의 장(場)(Instruction)이며 시간(時間)과 더불어 유명(有名)해지고 아름다워지며 성숙(成熟)하고 성장(成長)하는 이상적(理想的)인 사회(社會) 교육장(教育場)으로 변모(變貌)되고 있다. 이러한 박물관(博物館)의 시대적(時代的) 기능변화(機能變化)에 부응(副應)하기 위하여 구미(歐美) 각국(各國)에서는 서로 경쟁하여 문화정책(文化政策)을 입안(立案)하고 문화시설(文化施設)의 확충과 활용(活用), 문화(文化)의 보급(普及) 선양(宣揚) 박물관(博物館)의 사회적(社會的) 활동(活動)에 총력(總力)을 경주(傾注)하고 있다.

따라서 구미인(歐美人)에 있어서 박물관(博物館)은 낭만(浪漫)과 꿈과 이상(理想)이 도도(滔滔)히 흐르는 응접실(應接室)이 되고 굿마당이 되며 정신(精神)과 건강(健康)을

1) 學園社 世界大百科辭典 博物館 515p.

2) Brown Good 世界大百科辭典 博物館 515p.

3) 李蘭暎 博物館學入門 pp.41~42 서울 1975. 4. 10 三和出版社

4) 李蘭暎 ibid pp.23



살찌게하는 휴양지(休養地)요 사회교육(社會教育) 쉼터이고 학교정원이고 공원이기 때문에 그 위치도 시내중심가나 보행(步行) 거리내의 공원(公園) 또는 버스, 지하철등 교통(交通)이 편리한 곳을 선정(選定)하거나 원거리(遠距離)인 경우 교통편(交通便)을 집중(集中)시킨다.

이러한 기능(機能)을 위해서 그들은 박물관에 교육부를 설치하여 대학 대학원의 학점 취득과정 설치, 부설미술학교(附設美術學敎)(Cocoran art School) 국중고생유치원생을 위한 특별전시실 운영(National Portrait gallery of Art), 콘서트, 슬라이드, 오페라, 연극공연(演劇公演) 예술문화 영화 상영, 전시장(展示場) 그룹안내, 햇손쇼, 특별강좌, Video tape Record 이용, 신발견(新發見)유물실개방, 이동순회전시(移動巡廻展示), 고적지답사등 관광안내, 조기(早起) 유적지(遺蹟地) 또는 박물관안내 또는 야간공개(夜間公開)와 전통예술인(傳統藝術人)의 현장시연(現場試演), T.V. 선전, 바레틴, 잡지, 년감, 신문, 지하철 광고, 선전벽보판 이용 등 다양(多樣)한 방법(方法)을 활용(活用)하고 있다. 특(特)히 이러한 문화(文化)의 대중화(大衆化) 추세에 따라 인간(人間)과 인간(人間)의 만남, 인간문화(人間文化)의 공통적(共通的) 이해(理解)와 공감대(共感帶)를 찾기 위(爲)하여 개최(開催)되는 각종(各種) 학술(學術) 문화(文化) 행사(行使)는 물론(勿論) Olympic에까지 파급(波及)되어 Mexico 올림픽의 각국(各國)의 문화재전시(文化財展示)나 Tokyo 올림픽의 민속예술제(民俗藝術祭) Expo 70만국박람회의 해(海)의 민속전시(民俗展示), Honolulu 국제공항에 소개(紹介)된 Bishop museum, Haneda 공항의 일본 과학문화사(日本科學文化史) 전시(展示), Paris의 Lovre 지하철역(驛)의 Greece 로마의 공예품 모형(模型) 전시(展示), Toulour 광장의 Henry moore의 조각전(彫刻展), 덴마크 Beach의 Viking 축제(祝祭)와 생활문화(生活文化) 재현(再現), 주제(主題)에 따른 독자적(獨自的) Film. V.T.R. 제작 등(等) 사회와 이웃 속에, 심지어 안방까지 방문(訪問)하고 뛰어드는 문화(文化)의 사도(使徒)로서 박물관(博物館)이 활동(活動)하고 있다.

박물관(博物館)은 설립자(設立者)에 따라 국립(國立) 공립(公立) 사립(私立) 박물관(博物館)으로 나누어지고, 수집지역(蒐集地域)에 따라 세계(世界) 전국(全國)지방(地方) 향토박물관(鄉土博物館)으로, 이용자(利用者)에 따라 공공(公共) 학교(學敎) 아동(兒童) 특수(特殊)(例 : 독일(獨逸)의 점자박물관(點字博物館), 불(佛)의 Fashion 박물관) 장소(場所)에 따라 실내(室內) 실내외(室內外) 야외등(野外等)으로 나누어지며 이에는 야외민족 박물관(野外民族博物館) 사적지(事跡址) 식물원(植物園) 동물원(動物園) 능원지(陵園址) 수족관(水族館) 민속촌(民俗村) 조각공원등(彫刻公園等)이 있으며 전시주제(展示主題)에 따라 종합박물관(綜合博物館)과 전문박물관(專門博物館)으로 나누고 전문박물관에는 고고학(考古學) 역사학(歷史學) 미술사(美術史) 인류학(人類學) 민속학(民俗學) 자연사(自然史) 산업(產業) 교통(交通) 의학(醫學) 약학(藥學) 서도(書道) 출판(出版) 고생물(古生物) 해양(海洋) 선박 철도 보석(寶石) 식물(植物) 보건(保健) Changing World 박물관(博物館)<sup>5)</sup> 등(等)이 있다.

그들은 미술사박물관(美術史博物館)에서 미술품(美術品)을 하나의 완성(完成)된 예술품(藝術品)으로서 감상케하는 동시에 그 제작(製作) 기법(技法)을 보여주고 역사박물관(歷史博物館)은 유물(遺物)의 의의(意義)나 변천(變遷)을 통(通)하여 각시대(各時代) 인간(人間)의 사회적(社會的) 경제적(經濟的) 문화적(文化的) 생활(生活)의 진행과정(進行過程)을 이해(理解)시키며 전시(展示) 방법(方法)도 설명적(說明的) 해설적(解說的) 시대

5) 李蘭暎 ibid pp. 26~27

별(時代別) 계통적(系統的) 관련전시(展示)를 하고 문화사박물관(文化史博物館)은 민족(民族)의 기원(起源)에 관(關)한 연구자료(研究資料)로부터 생활양식(生活樣式)의 변천(變遷) 또는 문화발전양상(文化發展樣狀)에 관(關)한 자료(資料)를 전시(展示)하였다. 문화사박물관(文化史博物館)은 취급지역(取扱地域)에 따라 민속박물관(民俗博物館)과 민족박물관(民族博物館)으로 분류(分類)되고 수집내용(蒐集內容)은 민족(民族)의 의식주(衣食住) 전쟁도구(戰爭道具) 악기(樂器) 화폐(貨幣) 인쇄도구(印刷道具) 장식품(裝飾品) 생업(生業) 신앙(信仰) 예능(藝能) 오락(娛樂) 관혼상제(冠婚喪祭) 연중행사(年中行事) 풍속(風俗) 습관(習慣) 등(等)의 정신적(精神的) 물질적(物質的) 문화(文化)의 총체(總體)를 표현(表現)하는 인간문화(人間文化)의 모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특(特)히 역점(力點)을 두어야 할 박물관(博物館)은 자연과학(自然科學) 및 산업공학(產業工學) 자료(資料)를 수집(蒐集)한 과학(科學) 박물관(博物館)이다. 이에는 식물(植物) 동물(動物) 광물(鑛物) 암석(巖石) 고생물(古生物) 지질(地質) 산업(產業) 해양(海洋) 동식물원(動植物園) 수족관(水族館) 국립공원(國立公園)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이화학(理化學) 천문(天文) 우주공학(宇宙工學) 등(等) 자연과학(自然科學) 분야(分野)를 광범위(廣範圍)하게 취급(取扱)한 박물관(博物館)이다<sup>6)</sup>.

그러나 이러한 모든 박물관은 소위 인류학(人類學) 또는 인간(人間)박물관으로 인간(人間)과 더불어 인간(人間)과 문명지역별(文明地域別), 민족별(民族別), 민족상호간(民族相互間), 인간(人間)과 문화적(文化的) 환경관계 문화진화(文化進化) 서양문명(西洋文明)의 원류(源流) 문명(文明)의 보급(普及) 전파(傳播), 문화(文化)의 사회적 적응과정 등 인간(人間)과 문명(文明)의 과거(過去) 현재(現在) 미래(未來)를 투영(投影)해 주는 Panorama 장(場)이었다. 그래서 서구(西歐) 및 미국(美國)의 박물관(博物館)들은 무엇 때문에 유물(遺物)을 수집(蒐集) 보존(保存) 전시(展示)하며 박물관(博物館)이 보다 바람직한 생활(生活)과 인간(人間)의 사회적(社會的) 교육(教育)을 수행(遂行)하기 위한 참된 기능(機能)과 사명(使命)에 눈을 돌리고 어떻게 해야만 주어진 임무(任務)를 다할 수 있는가를 열심(熱心)히 탐구(探究)하고 있다. 뉴욕의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의 목표설정(目標設定)을 보면 ① 우리의 연구(研究)는 인류(人類)의 생물학적(生物學的) 문화사적(文化史的) 사고(思考)에 영향을 주고 ② 교육(教育)은 소년(少年)들에게 지혜(智慧)와 이지(理智)를 일깨워 주고 젊은 과학자(科學者)를 위(爲)한 지식(知識)의 밑거름이 되며 ③인류학(人類學) 민족학(民族學) 계획(計劃) 전시(展示)는 각

6) 학원사 ibid pp. 516~517

Ralpn H. Lewis : Manual for Museums, National Park Service U.S. Department of the Interior Washington D.C. 1976

Danish Journal 77 : Why Museums, Danis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hristiatsnsborg, DK-1218 Copenhagen K.

Smithsonian Institution ; Official Guide to the Smithsonian, Washington D.C. 21560 U.S.A 1976 A.M.N. ; Tht Americal Museum of Natural History An Introduction, Central Pa가 West and 79th Street N.Y. N.Y. 10024

Nora B. Beeson ; Guide to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72 Metropolitan Museum of Art N.Y. N.Y.

Gudmund Boesen ; Danish Museums 1966 Copenhagen Committee for Danish Cultural Activities Abroad Grace Morley 外 共著 : Museums Work Published in Commemoration of the National Museum Centenial 1974 National Museum of Bangkok

Bent Rying ; DENMARK, An official Handbook 1974 Royal Danis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hristiansborg palace Copenhagen

기(各己) 다른 인류문화(人類文化)를 보다 이해(理解)시키는데 증진(增進) 할 것이며 지식(知識)의 전파(傳播)와 분배(分配)에 노력(努力)하고 ④우리의 전시(展示)는 인류(人類)의 과거(過去)와 복잡(複雜)한 현대환경(現代環境)의 개선(改善)까지도 포함(包含)하며 ⑤ 시간(時間)과 더불어 유명(有名)해지고 아름다워지며 지역사회(地域社會) 계발(啓發)은 물론(勿論) 국민(國民)의 정서적(情緒的) 생활(生活)을 함양(涵養) 시키고 ⑥ 학문(學問)과 예술(藝術)의 진흥발전(振興發展)은 물론(勿論) ⑦ 항상 발전적(發展的) 변화(變化)를 추구(追求)하고 생동(生動)하는 자세(姿勢)를 취(取)하며 심지어 J.F.Kennedy Presidential Campaign, Boston Teaparty, Strike는 물론 자연(自然)의 파괴 등(等) 까지 취급하였다.

### ③ 전시목표 및 편의시설 (展示目標 및 便宜施設)

이의 활발(活潑)한 운영(運營)과 전시(展示)를 위해서 서구(西歐)의 박물관(博物館)은 시청각(視聽覺)을 이용(利用)하여 보고 듣고 즐기고 느끼게 하는 제도적 장치, 지식을 지혜로 전환시키는 영감(靈感) 전이장치(轉移裝置)에 많은 노력(努力)과 정열(情熱)을 쏟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전시(展示)는 Media 중심(中心)으로 실물(實物), 표본자료(標本資料), 문화현장(文化現場) 문화배경(文化背景)을 연관시켜 지식(知識)의 잔편(殘片)들을 지혜(智慧)로 연상되도록 시청각 기기 보조수단을 최대(最大)한 이용(利用)하였다. 두 번째 전시방법(展示方法)은 단순(單純)한 역사적(歷史的) 사실(事實)의 나열(羅列)이 아니고 문화(文化)의 기능(機能)을 파헤쳐 전시(展示) 하였으며 학문적 접근(Scientific Approach)를 통(通)한 문화(文化)의 맥락(脈絡)(Context)을 찾고 디자인 기술(graphic design)과 전시기술(Space development)의 삼요소(三要素)를 작용(作用)시켰고, 세번째는 의욕적(意慾的) 계획(計劃)을 가지고 각 전시실 상호간(相互間)의 유기적 관련을 가지게 하였고 Theme(主題)이나 Topic 중심(中心)으로 전개(展開)하고 걷고 보고 느끼고 듣고 읽는 즐거움을 만끽하게 휴식(Recreation)공간까지도 마련하였다.

편의시설(便宜施設)은 방문객(訪問客)과 직원(職員)의 주차(駐車)를 위한 야외주차장(野外停車場)(Parking lot) 지하(地下), 지상(地上), 옥상(屋上)주차장(停車場)(Garage) 외투나 책, 여행가방 핸드백 등을 맡겨 놓는 Coat Check, baggage Counter, locker나 Cloak room 관객의 간단한 음료수(飲料水)를 마실수 있는 자동판매기(Automatic Sales box), 스넵빠 Cafeteria(Self Service 식당) Restaurant, 장애자(障礙者)를 위한 Wheel Chair(Arm chair) 어린이용(用) baby car와 특수화장실(特殊化粧室) Elevator Escalater Walking belt 깃연실(Smoking room) 공중전화(公衆電話)(telephone booth), 우편함, 강당(講堂) 콘서트룸, 슬라이드 사진 자료실, 도서관, 회원(會員)라운지(members room : lounge) 박물관책가게, 교육실(教育室)(Education room) 전시실내(展示室內) 관계서적코너, 어린이를 위한 휴식공간 및 Recreation Center, 시청각교실(Audiovisual room, Vedeo Tape Record room) 신발견유물실(新發見遺物室)(Discovery room) 일요시장설치(日曜市場設置)(Summer market : Fair ; 공예품 골동품 등을 옛 시장 형태로 사고 판다) 안내창구(案内窓口)(Information desk)와 Volunteer System 활용(活用)과 전시장안내(展示場案内)(guided tour) Recorded information, Audio guide, portable tape recorder(휴대용 녹음기), 어린이 무용실(舞

踊室), 인형극장(人形劇場) 시청각(視聽覺)놀이터 어린이 중고교생박물관(博物館) 어린이를 위한 과제별전시(課題別展示) Suit case(여행용상자(箱子)), museum car(mobilemuseum)등(等)이 있다.

이밖에 박물관전시에 관계된 모조품이나 민속 인형 슬라이드 포스트가드 등을 파는 박물관 매점운영 등을 들 수가 있다.

#### ④ 재정(財政) 및 공개(公開)

박물관(博物館)의 재정(財政)은 국가(國家)나 주정부(州政府) 지방자활단체(地方自活團體)의 재정원조(財政援助), 국제기구(國際機構) 재단(財團)의 후원금(後援金) 또는 교부금(交付金), 기금(基金)의 이자(利子)(James Smith의 Fund, National Gallery of Art의 Melon Fund) 입장수입(入場收入), 박물관회원(博物館會員) 회비(會費)(일반회원(一般會員) 25\$ 참여 40\$ 지속 100\$ 지원 250~500\$ Sponsor 1,000\$ patron 2,500\$) 기타(其他) 재산임대(財産賃貸)(토지(土地) 건축(建物)), 모금(募金), 판매장수입(販賣帳收入)과 개인(個人)이나 재단(財團)의 전시품기증(展示品基贈), 특별전시실(特別展示室) 운영기금(運營基金), 구입기금(購入基金), 전시실(展示室), 신축기금등(新築基金等)이 있으며 정부(政府)에서는 이러한 활동(活動)을 지원(支援)하기 위해서 국고(國庫)의 의무적(義務的) 지원(支援)(구미(歐美) 특히 덴마크의 경우)기부시(寄附時) 재산세(財産稅) 상속세(相續稅)의 면제(免除), 기증자(寄贈者)이름의 기금적립(基金積立) 또는 기념전시실(記念展示室)마련, 회원(會員)에게는 지역사회(地域社會) 성원(成員)으로서 참여의식을 높여주고, 문화기관(文化機關)에 관심(關心)과 애착심(愛着心)을 불러 일으키고 회원(會員)은 특별전시(特別展示)의 초청(招請), 강연회 간담회 음악회등의 초대(招待) 각종자료(資料)의 배부혜택(配付惠澤), 박물관(博物館) 자료(資料), 서점(書店)의 이용(利用) 및 할인혜택 등(等)의 특권(特權)을 누릴 수가 있다.

박물관(博物館)의 지출(支出)은 사무(寺務) 통신(通信) 건물유지(建物維持) 수리(修理) 보수(補修) 소장품보존관리비(所藏品保存管理費)와 관리직(管理職) 연구직(研究職) 기술직(技術職)의 임금(賃金) 특(特)히 박물관(博物館)을 최고(最高)의 문화적(文化的) elite들의 산실(産室)로 키우기 위한 연구조사(研究調査) 투자(投資) 소장품(所藏品) 도서(圖書) 자료(資料) 구입비(購入費) 전시비(展示費) 발간비(發刊費)와 각종박물관(各種博物館) 행사운영비등(行事運營費等)이 포함(包含)된다. 이밖에 전시비(展示費)나 소장품(所藏品) 구입비(購入費)가 별도기금(別途基金)으로 마련되어 있는 박물관(博物館)이 많다.

대부분의 세계적(世界的) 박물관(博物館)들은 크리스마스(Christmas)와 부활절(復活節)의 年 1~2일을 제외(除外)한 연중개관(年中開館)하여 하기(夏期)에는 A.M. 10時부터 P.M. 9 : 00時까지 또는 주중(週中) 수(水), 금(金), 토(土) 일요일(日曜日) 등(等)을 야간공개(夜間公開)하거나 月 또는 주일회(週一回) 무료공개(無料公開)하며, 입장료(入場料)는 국립(國立)의 경우(境遇) 무료(無料)가 많고 재단(財團)이나 사립(私立)의 경우(境遇) 50cent(300원)내지 1\$이 통례(通例)이며, 어떤 박물관(博物館)에서는 수의(隨意)(Pay What you wish : discretionary) 관객(觀客)은 9歲에서 13歲가 가장 많으며 자연사박물관(自然史博物館)의 경우 1日 10000名 1年 350만명(萬名)이 된다. 전시품(展示品)은 전체(全體) 소장품(所藏品)의 1~2%로 Smithsonian의 경우 5,500만점중 인류학(人類學)유물은 140만점, 직원은 600名가운데 연구주제(研究主題) 380과제(課題) 연구원(研究員)(과학자(科學者))

포함)이 111人(인류학부(人類學部)가 20人)전시관계 직원이 35人으로 Graphic Design, Illustrator, 전기기술자(電氣技術者) 진열장 제작과 모형제작자 화가(畫家) 보존기술자(保存技術者) 등(等)이 망라되었다.

#### ⑤ Volunteer System 운영(運營)

이들의 박물관(博物館) 조직(組織)과 활동(活動)에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정규직원(正規職員) 이외(以外)의 소위 Volunteer system이라는 자발적(自發的) 지원자(支援者) 봉사활동(奉仕活動) 운영제도(運營制度)이다. 이 제도(制度)의 착상(着想)은 박물관(博物館)이 전문(專門) 연구서적(研究書籍) 발간(發刊)이나 특정분야(特定分野) 소수인(小數人)의 전유물(專有物)을 벗어나 문화(文化)의 대중(大衆) 보급(普及)과 Wit와 Smile 이 뒤섞인 Popular instruction을 강조(強調)하고 생활(生活) 속에 깊이 뛰어들기 위하여, 박물관(博物館)의 광범위한 범위(範圍)와 해박한 깊이와 지식을 (Scope and depths of museum)대중화(大衆化)하기 위하여 창안(創案)된 것으로 이들은 회원(會員) 가운데 문화(文化)의 향상(向上)과 보급(普及)에 의욕(意慾)을 가진자, 생활수준(生活水準)과 지식수준(知識水準)의 발달(發達)로 삶의 여유(餘裕)를 가진자, 공직(公職)이나 교직등(敎職等) 직장(職場)에서 은퇴(隱退)한 자(者)들이 박물관(博物館)의 모든 분야(分野)에 참여(參與)하고 있다. 봉사활동(奉仕活動) 지원자(支援者)는 자료분류(資料分類)에서 기록보존작업(記錄保存作業), 사진(寫眞) 슬라이드 정리(整理), 안내(案内), 청소(清掃), 박물관교사(博物館敎師), 번역, 경리, 기념품가게의 판매(販賣) 회계(會計), 방송(放送), 전시계획(展示計劃) 참여(參與), 문서(文書)의 발송(發送) 서무(庶務) 간행물제작(刊行物製作), 회원조직운영(會員組織運營), 보존처리(保存處理), 공연(公演) 및 실연현장(實演現場)의 운영(運營)에 따른 연극(演劇), 오르간피아노, 기계작동, 수예 바느질, 사군자(四君子), 붓글씨짚신 낙죽현장(烙竹現場)등을 실제운영(實際運營)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問題點)은 기밀사항(機密事項) 귀중품관리(貴重品管理), 작업(作業)의 체계적(體系的) 추진등(推進等)에 있어 외부인사(外部人士)의 참여(參與)가 곤란(困難)한 부분(部分)과 책임(責任)과 권리(權利)의 문제등(問題等) 복잡(復雜)한 문제(問題)가 있다.

#### ⑥ 보존과학(保存科學)과 문화투자(文化投資)

그들 박물관(博物館)에 있어서도 보존과학(保存科學)은 더욱 강조(強調)되고 있으며 최우선사업(最優先事業)의 하나이다. 특(特)히 우리에게 있어서도 문화재(文化財)의 학술적(學術的) 조사연구(調查研究)와 문화재(文化財) 지역(地域) 발굴정화(發掘淨化) 사업(事業)에 따라 실험시설(實驗施設)의 확충(擴充)과 요원(要員)의 양성(養成), 기술계발(技術啓發)은 시급(時急)하고 절실(切實)히 요구(要求)된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가(住宅街)나 사무실(事務室)과 분리(分離)된 별관(別館)의 실험실(實驗室)이 설치(設置)되어 동력선전기(動力線電氣) 온냉수(溫冷水) 수전(水銓)과 상하수도시설(上下水道施設), 소음(騒音) 공해(公害) 악취(惡臭) 방사선(放射線) 오염(汚染)으로부터 보호(保護)된 시설(施設)과 과학도서실(科學圖書室) 넓은 작업장 등(等)이 확보(確保)되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만시지탄(晩時之嘆)의 감(感)이 있지만 우리는 문화재보존(文化財保存)의 과학화(科學化)를 위하여 1) 이공계대학(理工系大學)이나 대학원생중(大學院生中) 물

리(物理) 화학(化學) 생물(生物) 암석(岩石) 등(等)의 전공자(專攻者)에게 장학금(獎學金)을 지급(支給)하여 문화재(文化財) 보존과학(保存科學)을 전공(專攻)케 하고 2) 이들 확보(確保)된 요원(要員)을 대학(大學), 연구소(研究所) 또는 연구기관(研究機關)에 파견(派遣)훈련(訓練)하고 3) 특수분야(特殊分野)에 따라서는 해외(海外)에 파견(派遣) 선진 기술(先進技術)을 연구(研究)케 함은 물론, 선진국(先進國)의 보존과학자(保存科學者), 처리전문가(處理專門家)를 초청(招請)하여 출토유물(出土遺物) 및 문화재(文化財)의 과학적(科學的) 보존관리(保存管理)에 대(對)한 기술습득(技術習得) 및 과학자(科學者)의 폭넓은 교류(交流)와 상호이해(相互理解)를 증진(增進)시키며 4) 전문(專門) 기능인(機能人) 양성소(養成所)를 대학(大學) 및 연구기관(研究機關)에 설치(設置)하여 보존처리(保存處理) 수행자(修行者) 기능자(技能者) 양성(養成)과 기술개발(技術啓發), 보존처리 능력(保存處理能力)을 향상(向上)시키고 교수진(教授陣)에게 연구비(研究費)를 지급(支給)하여 산학협동연구(産學協同研究)를 강화(強化) 시키는 숙제(宿題)가 남아 있다.

우리가 특(特)히 그들에게 배울 것은 박물관이 고대문화(古代文化)의 보고(寶庫)(not a jacket but a creative factory)가 아니고 전통문화(文化)의 창조적인 산실(産室)로서 Idea, Image, Suggestion을 끝없이 전(傳)하고 박물관이 무엇 하는 곳이며 미래에 대한 어떤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윤리(倫理)이다. 이를 위해서 사회 모든 성원이 참여하고 재단, 정책기관은 최대의 재정적(財政的) 지원(支援)과 정책적 배려를 하고 전문가(專門家)의 양성(養成)에 과감(果敢)한 투자(投資) 전문가(專門人)의 해외교류(海外交流) 기술(技術)훈련습득(習得), 문화재보존과학연구소(文化財保存科學研究所) 등(等)에 절실(切實)한 성원(聲援)이 있어야 겠다. 박물관(博物館)을 중심(中心)한 문화예술분야(文化藝術分野)와 교육(教育)과 국방(國防)의 투자(投資)는 백년지계(百年之計)로 외적(外的) 성장(成長)은 눈에 띄지 않지만 내적(內的) 잠재력과 생명력(生命力), 지속력(持續力)은 대단하며, 지혜(智慧)의 끝없는 추구(追求)와 보급(普及) 전파(傳播)는 아무리 강조해도 도(度)가 지나치다 할 수 없다. 필자(筆者)가 문부성(文部省) 전문가 교환계획으로 6개월 연수하였던 덴마크는 4만 3천 km<sup>2</sup>로 인구(人口)는 600만명 박물관이 줄 잡아 200여 개, 이 가운데 30여 개가 미술박물관(美術博物館) 나머지 150여개가 민속문화사박물관(民俗文化史博物館) 기타 순(順)이다. 이 나라를 지탱하는 것은 달가스 그룬트비, 키엘케골, 안달센, 닐스보어로 이어지는 사상가(思想家) 학자(學者) 그리고 문화인(文化人)이다. 독일, 소련의 어떠한 무력(武力)에도 그들의 문화(文化)에서 짝 터낸 애국심을 가지고 버틸 수 있다고 덴마크인(人)은 긍지(矜持)와 자부심(自負心)을 가지고 오늘도 세계(世界) 복지국가(福祉國家)로 발돋움 하고 있다. 불과 경남북 전북을 합쳐 놓은 국토(國土)에 서울의 인구(人口) 만도 못한 덴마크에 도서관이나 박물관이 없는 마을이 거의 없는 그들의 문화투자(文化投資)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할까?

Lists of museums I have visited.(1979)

#### DENMARK

Thorvalsen Museum

The Vikingship Museum in Roskilde

Roskilde Domkirche

Roskilde Museum

Sct. Jorgenbjerg(Old Town)  
 Jægerspris Slot & Park Museum  
 Brede : Dept. of wood conservation of National Museum  
 Kunstindustrimuseets  
 Copenhagen City Museum  
 Staten Museum for Kunst  
 National Museet Ethnografik Samling  
 Den Permanente(Modern Danish Arts & Crafts)  
 Hillerod : Frederiksborg Museum ( The Museum of National History)  
 Horsholm : Jagt og Skovbrugs museet(Hunting & Forestry Museum)  
 Ny Carlsberg Glyptothek  
 Brede : National Museum of Denmark, Dept. of Metal Conservation  
 Helsingor : Denmark's Tekniske Museum  
     Kronborg Castle  
     Helsingor Bymuseum  
     The Church of St. Mary  
     Danish Maritime Museum  
     Retoration Area of Elsinore Old Town  
 Hundested : Knud Rasmussen Hut  
 Rosenborg Castle  
 Dept. of Model Making of National Museum  
 The Museum of Denmark's Fight for Freedom Brostes Sammling  
 Det Dansk Film Museum  
 Prehistoric site in Lejre  
 Humlævæk : Louisiana Museum for Moderne  
 Kunst  
 Niels W. Gade Museet  
 Brede : Frilands Museet (The Open-Air Museum of Nat. Mu.)  
 The Theatre Museum  
 Davids Samling

#### SWEDEN

Lund : The Museum of Cultural History of  
 Lund (KULTUREN)  
 Malmö : The Kings Park & Castles Park

#### WEST GERMANY

Hamburg : Altonaer Museum in Hamburg &  
 Jenish House  
 Hamburgisches Museum fur Volkerkunde  
 Museum fur Hamburgische Geschichte

Museum fur Kunst und Gewerbe  
Freilicht Museum an Kiekeberg ( Open Air Museum)  
Museum fur Bergedorf of Vierlande  
Vierlander Frilufts Museet Rieck Haus  
Bismarck Museet  
Auto Museum  
West Berlin : Stattliche Museen Preussischer  
Kulturbesitz(Dept. of Paintings, Sculptures, Ethnographies)  
Charlottenburg Palace  
Kunst und Bewerbe Museum  
Mausoleum  
Belvedere  
Der Stattlichen Schlosser und Garten(The Pfaueninsel)  
Gedenkstatte Plotzensee

#### FRANCE

Paris : Centre George Pompidoo  
Musee National Auguste Rodin  
Musee Cernushi  
Musee de Versailles  
Musee Guimet

#### NORWAY

Oslo : Vigeland Sculpture Park  
Oslo Cityhall Exhibition hall  
Oslo Cathedral  
Munch Museet  
Kon-tiki Museum  
Norwegian Folk Museum  
Vikingship Museum  
Fram(Polar Exploration ship Museum(  
Norwegian Maritime Museum  
National Gallery  
Kunst Hause  
Akershus Museum  
The Resistance Museum  
History Museum & Oslo Univ.Ethnography  
Museum  
Bergen ; Nina & Edv. Griegs home  
Fantoft Stav Kirke  
Schotstuene (Hanseatic Museum)



The Fishery Museum in Bergen  
Vesthandske Kunstindustri Museum  
Bergen Billedgalleri  
Bergen Hakonshallen  
Kongsberg : Bergverks Museet in Kongsberg

List of Museums I've visited in July and August (1979)

DENMARK  
Soleröd  
Sollerød Museum på Mothsågrden  
Ordrup  
Ordrupgaard samlingen  
Dragör  
Dragör Museet  
Amager  
Amager Museet  
Kobenhavn  
Medicinsk-historisk Museum  
Det Kongelige Bibliotek (Polarforskeren Knud Lasmusen 1879~1979  
Exhibition)  
Kastellet  
Mekani카 Musik Museum  
Post & Telegraf Museet  
Copenhagen Zoo  
Sotrm P. Museet  
The Zoological Museum of Copenhagen  
Den Hirschsprunke Samling  
Klampenborg Bakken & Deer Park  
Gilleleje  
Gilleleje Museum & Fishery Museum  
Niva  
Nivagaards Malerisamling  
Selsö  
Herregårds Museet & Selso slot  
Koge  
The Museum of Koge, Oldtown House & Sct. Nikolai Kirkei  
Frederiksund  
J.F. Willumsens Museum  
Hillerød  
North Zealand Folk Museum

Ebeholt Kloster ruin & Abbey Museum  
 Pengehistorisk Museum of Frederiksborg  
 Fredensborg  
 Fredensborg slot  
 Kobenhavn  
 Charrotenlund Aquvarium  
 Lightship in Nyhavn  
 B&W Museum  
 Our Saviours Church  
 Carlsberg Museum  
 Bukkerhus museet  
 Lolland & Falster ;  
 Maribo  
 Lolland-Falster Stifts Museum  
 Open-air Museum at Banghave  
 The Gallery of Maribo Museum  
 Nykøging  
 Falster Minder  
 Funen ;  
 Faaborg  
 Old Merchants House)Den gamle Gård)  
 Fåborg Museum  
 Nyborg  
 Nyborg Nyborg slot (castle Museum)  
 Middelfahrt  
 Middelfahrt Museum  
 Odense  
 Fynn Stifts Museum(Diocesan Art Museum of Funen)  
 Montestræde (Kulturhistorisk Museum)  
 Den Fynske Landsby (The Funen Village)  
 H.C. Andersens Hus & Birth Place  
 Falck Museum  
 Railway Museum  
 Vor Frue Kirke  
 Sct. Albal Church  
 Sct. Canutes Cathedral  
 Jutland ;  
 Skagen  
 Skagen Museum  
 Skagen Fortidsminder  
 Michael and Anna Anchers House

Drachmans House  
 Ålgorg  
 North Jutland Museum of Art  
 Jens Bang House(1624 Renaissance)  
 Old town Hall(1762 Baroque)  
 Historisk Museum  
 Ålborg castle  
 Århus  
 Århus Kunst Museum  
 Kobstadt Museet (Den gamleby)  
 Natur Historisk Museum  
 Forhistorisk Museum  
 Randers  
 Historisk Museum  
 Kunst Museum  
 Kultur Hus  
 Viborg  
 Skovgaard Museet  
 Stifts Museum  
 Hjerl Hede  
 Den Gamle Lanadsby (the Old Village)  
 Herning  
 Herning Museum (Dept. of Cultural History, Open-air Muse.& Technical  
 Museum)  
 Carl Henning Pedersen & Else Alfelt Museum  
 Herning Kunst Museum & Sculpture Park  
 Silkeborg  
 Silkeborg Kunst Museum  
 Moderne Gallerie  
 Vejle  
 Vejle Museum  
 Vejle Art Museum  
 Kolding  
 Museet på Koldinghus  
 Kunstforenings Samlinger p Koldinghus  
 Esbjerg  
 Esbjerg Museum  
 Museum of Modern Danish Art  
 Fishery & Maritime Museum  
 Ribe  
 Den Antikvariske Samling(Queens Gaard, Hans Tavsens Hus, Porsborg)

Ribe Kunst Museum  
Tonder  
Tonder Museum  
Tonder Art Museum  
Sondergorg  
Museet på Sonderborg  
Haderslev  
Haderslev Amt Museum  
Coach Museum

#### FINLAND

Helsinki  
National Museum of Finland (Suomen Kansallis Museo)  
Seurasarri Open-air Museum (Seurassaren Ulko Museo)  
Helsinki City Museum  
National Museum of Art (Areneum)

#### SWEDEN

The Swedish Museum of Architecture  
Stockholms House of Culture  
National Museum of Fine Arts  
The Nation Maritime Museum  
The National Museum of Science & Technology  
Tele Museum  
The Wasa Dockyard  
The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The Historiska Museet(National Antiquities)  
The Royal coin Cabinet, Mediterranean & Near Eastern Antiquities)

This Research Report supported by the U.S. Rockefeller Foundation and Ministry of Education in DENMARK Under the provision of Cultural Exchange program between Denmark and Korea.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ies to express my gratitude and appreciation to the JDR 3rd Fund trustees, Mr. Richard S. Lanier, Ms. Maureen Liebl and also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DENMARK, Mr. Aabo, Ms. Kate Rasmusen and all the friends whom I met in and outside museums for their kind help and Cooperation. The Title of the thesis is Korean Heritage in Scandinavia and the function of ethnographical museum in Europe and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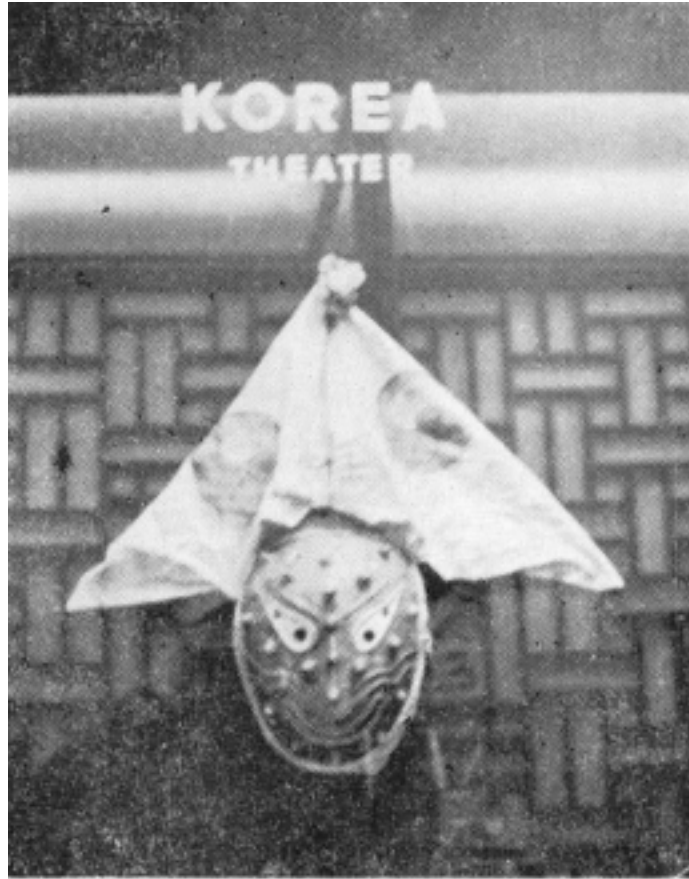


**뉴욕 자연사박물관 고래와 巨木 展示製作**

뉴욕 자연사박물관 고래와 거목(巨木) 전시제작(展示製作)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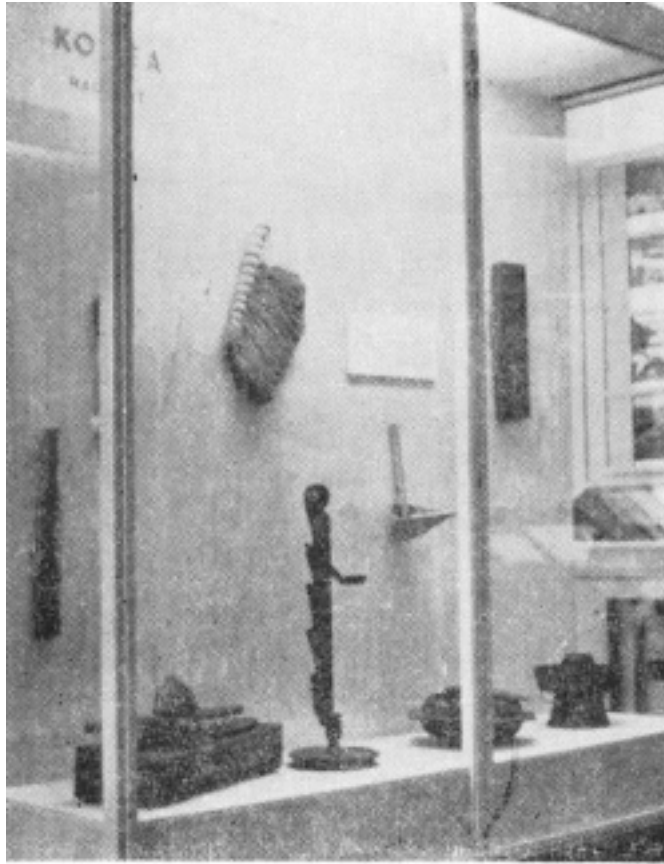


스미스소니안 J.F. Kennedy센터 박물관活動  
스미스소니안 J.F. Kennedy 센터 박물관 활동(活動)  
(Smithsonian Institution Washington D.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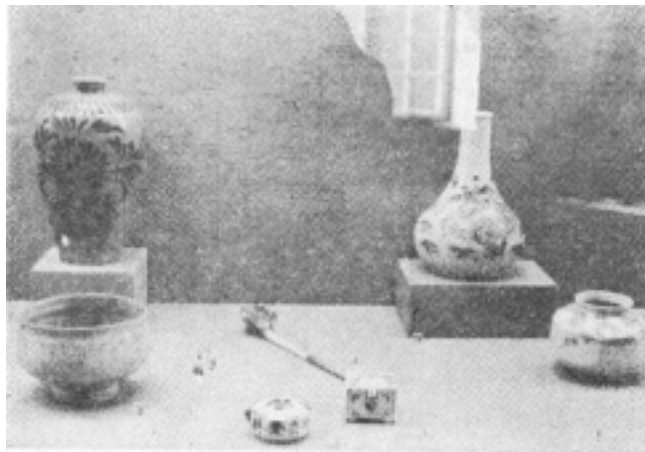


함부르크 민족학 박물관 가면전시

함부르크 민족학 박물관 가면전시  
(Hamburgisches Museum ft Völkerkun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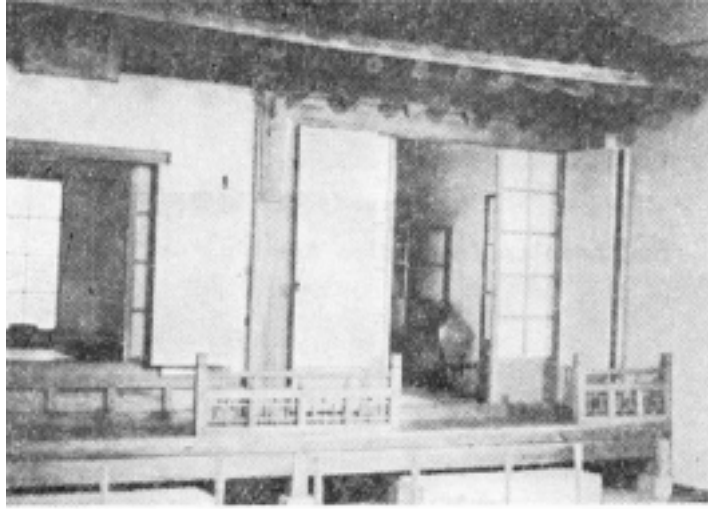


함부르크 민족학 박물관 민속품전시  
 함부르크 민족학 박물관 민속품전시  
 (Hamburgisches Museum ft Völkerkunde)



스톡홀름 동아시아 박물관 도자기 전시  
 스톡홀름 동아시아 박물관 도자기 전시  
 (The Mus. of Far Eastern Antiquities, Stockholm)





덴마크 국립박물관 민족학부 백악산방  
덴마크 국립박물관 민족학부 백악산방  
(Denmark Ethnografisk Samling)



덴마크 국립박물관 민속의상 전시  
덴마크 국립박물관 민속의상 전시  
(Denmark Ethnografisk Samling)



덴마크 은행박물관 한국화폐 전시  
덴마크 은행박물관 한국화폐 전시  
(Pengehistorisk Museum of Frederiksborg)